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27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07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상반기 OKR 성과발표 (07.23 / 25 / 27)

재활의료, 통합의료, 경원지원에서 2024년 상반기동안의 OKR 계획과 실천을 돌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와 의미를 살펴보는 상반기 OKR 성과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와 원인을 통해 하반기동안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조사 실시 (07.16~18)

회복기 재활인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인증평가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병원 전반에 흐르는 따뜻한 조직문화에 존경을 보낸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증 과정을 총괄해주신 혼신을 다해주신 박선영 간호팀장,
인증 과정에 직접 함께 자리해주신 김완호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진료부,
인증의 최전선을 잘 준비하고 지켜주신 보건안전팀,
인증위원분들의 의전과 ST를 책임감 있게 맡아주신 선생님들,
각 팀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팀장, 부팀장, 파트장님들,
그리고 인증 현장에서 선수를 맡아주신 분들게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병원 인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조직문화와 경영 분석, 브랜딩을 체계화해주신 각실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신 해나행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마치며 감사를 담아
백선미 드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개원이래 재활중심병원으로 성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사회복귀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보면서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이라는 미션과 비전을 실천한 백선미 병원장님과 김완호 원장님, 박선영 간호팀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을 보냅니다. 인증의 목적인 환자안전과 재활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하는 모습을 인증기간 내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증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족이 오고싶은 병원"이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인증위원 피드백



1cm 이하의 작은 갑상선암에 대한 치료

서울아산병원 백정환 교수님 특강 (07.19)



지난 7/19(금) 조금 늦은 오후에는 멀리서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아산병원에 백정환 교수님인데요. 백교수님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갑상선 양성결절에 대한 고주파를 적용하셨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갑상선의 진단과 시술에 있어서 전 세계를 지금 리딩하고 있게 된 장본인입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은 평소, 정말 많이 성장한 시술에 대해서 백정환 교수님의 강의를 병원 직원들이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날 강의는 PTMC(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양성, 재발암, 원발암이 있는데 원발암 중에서도 1cm 이하의 작은 갑상선암을 PTMC라고 하며, 이 1cm 이하의 작은 갑상선암을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해주셨습니다.











'함께 계속 될 가치 있는 걸음'
해나행 수습수료식 (06.29)

6/29(토) 오전엔 '함께 계속 될 가치 있는 걸음'이라는 주제로 해나행 수습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신입직원 교육에 참여했던 대상자 중 3개월 수습기간의 과정을 마친 노고를 치하하며 축하하는 자리로, 수습기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시작 전 자유롭게 티타임을 가졌고, 개회 및 일정 안내 후 진행될 교육에 대해 간단한 설명 및 신입직원 교육을 담은 '그날, 우리들' 영상을 감상하였습니다.

이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으로 병원에 대한 퀴즈 진행하였고, 본격적으로 개인별 이전의 나와 비교하여 성장한 나의 비전 실행 스토리, 알게 된 지식, 극복한 것들, 성장을 도운 사람들, 나의 비전과 공약&다짐을 발표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담소담 마무리 격려와 감사 나누기, 각종 시상과 수료증 및 웰컴키트를 전달하였으며 만족도 조사와 단체사진을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처음으로 시작한 신입직원 교육과 함께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보낸 직원들의 첫 수습수료식을 통해 우리병원만의 또 하나의 의미있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풀꽃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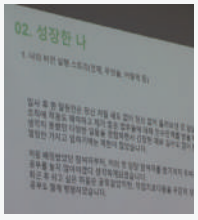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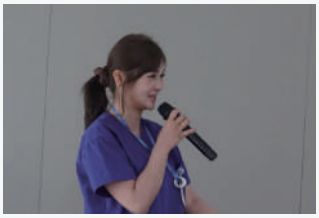
- 나태주 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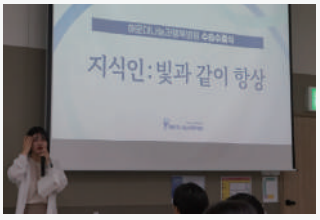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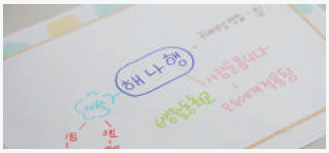


‘함께 계속 될 가치 있는 걸음’
해나행 수습수료식 (0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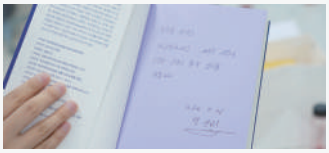
풀꽃 · 2

- 나태주 詩 –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7/26(금) 오전엔 ‘함께 계속 될 가치 있는 걸음’ 그 두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며 해나행 수습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에 신입직원 교육에 참여했던 대상자 중 3개월 수습기간의 과정을 마친 노고를 치하하며 축하하는 자리로, 수습기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시작 전 자유롭게 티타임을 가졌고, 개회 및 일정 안내 후 진행될 교육에 대해 간단한 설명 및 신입직원 교육을 담은 ‘그날, 우리들’ 영상을 감상하였습니다.

이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시간을 가졌고, 수습기간 중 자기 성장 PT를 발표하였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소담소담 마무리 감사와 격려,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종 시상과 수료증 및 웰컴키트를 전달하고, 설문조사와 단체사진을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수습 과정을 통해 우리병원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성실히 배워왔고, 고객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의료서비스를 실천하였으며, 동료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함께하는 모습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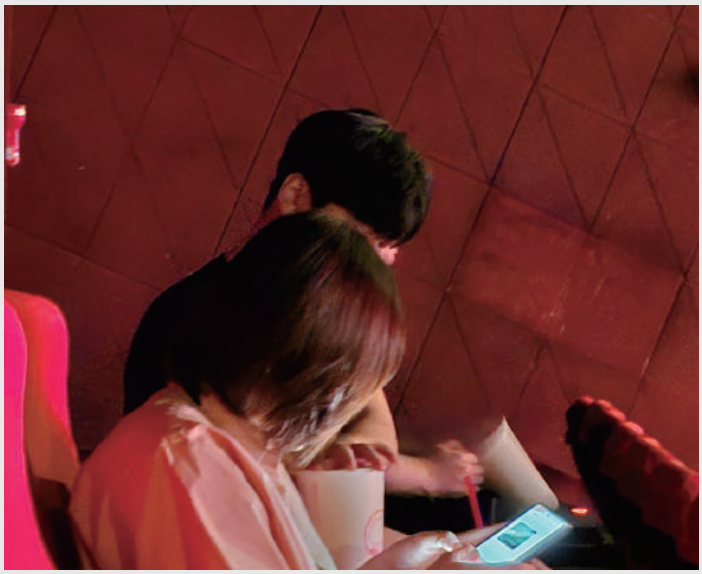


밖으로 한걸음씩 (07.10)

이○○님은 영화관람을 위해 지하철을 타고 센텀CGV로 갔습니다. 전날 도착한 휠체어로 이동하시는데 내구성이 뛰어나 외부활동 하는데 좋았습니다. 영화관에서는 팝콘은 꼭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호자분과 알콩달콩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영화를 다보고 이동하는데 비가 와서 걱정되었지만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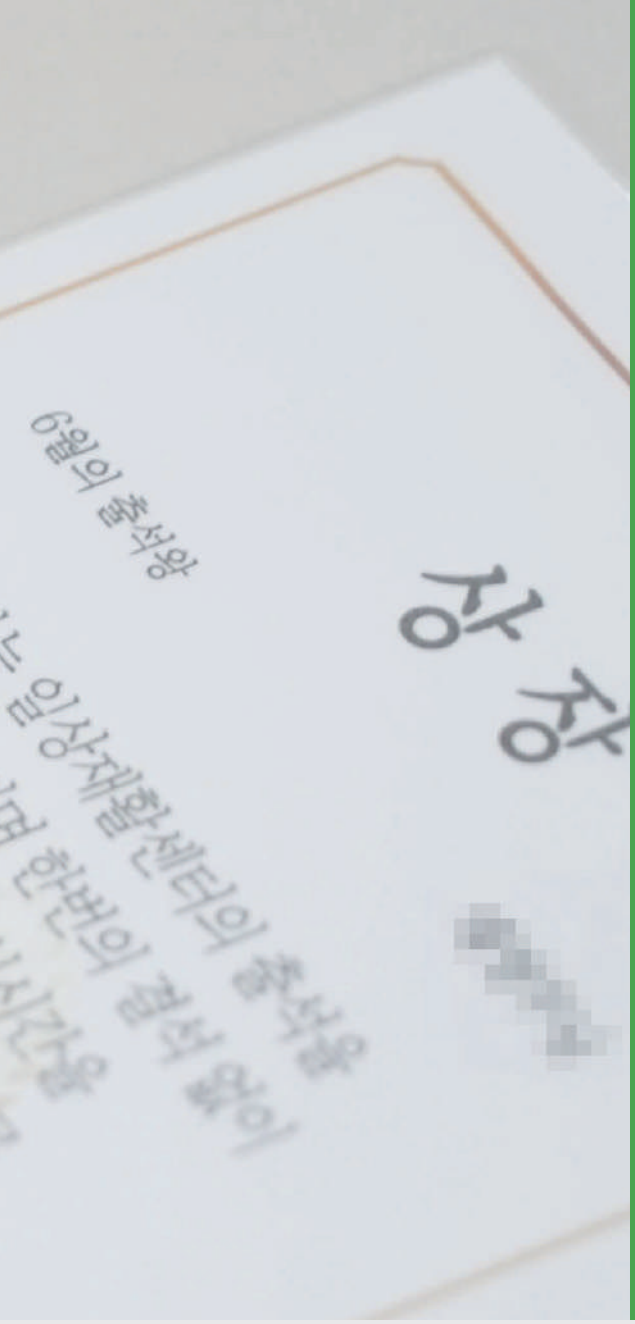
휠체어스쿨 (07.03)

장마로 인해 외부에서 진행이 어려웠는데 이날엔 다행히 비가 안와서 5층테라스에서 진행했습니다. 휠체어로 경사를 오르내릴 때 자세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님은 처음이시지만 오르내리는데 안정감 있게 하셨고 다른 분들도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아 보치아를 했었는데 이○○님이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른 스포츠도 알아보려합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7.05)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채○주, 주○우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정○찬, 심○미님이 수상하였습니다.

꾸준한 출석과 자립으로 한 달 동안 재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참여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만나서 반갑습니다' (07.06)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님의
웃음 가득한 노래교실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노래를 배우는 것은 물론,
참여자와 보호자, 간병사, 직원이
함께 박수치며 '웃음'으로써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날려버리고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4년 7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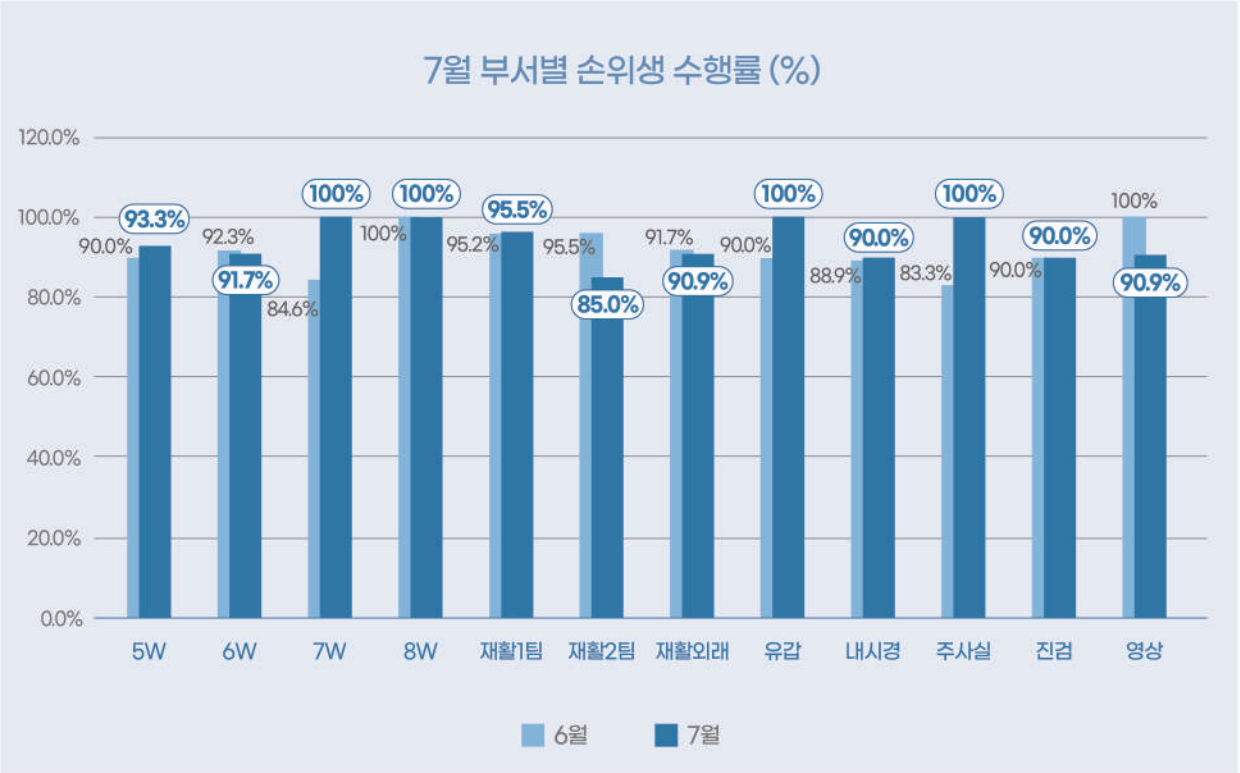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07월 01일 ~ 2024년 07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4년 6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38	128	92.8%	**+0.4%**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사회복귀지원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06

상담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다

만 19세로 입원 중인 김○○님 보호자는 경제적 어려움 및 학업 복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회사업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김○○님은 2세경부터 뇌전증과 소뇌 위축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인 경과를 관찰하며 학년기를 보내왔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재학 중 좌측중대뇌동맥 경색 발병하여 재활치료를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보행장애와 진전, 협응장애 있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 동반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치료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치료비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인테리어사업 부도로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며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워 주 소득자인 어머니의 수입으로 병원비,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부모님은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의 끈을 놓지 않았고 이에 사회사업팀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함으로써 김○○님의 치료 지속을 위한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이제 막 성인이 된 김○○님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현재 상황에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려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학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며 퇴원 후 물리치료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김○○님은 본원에서 치료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나도 누군가를 위해 치료해 주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 지지는 물론, 학업 복귀, 진로 탐색을 위한 과정을 함께 고민하며 진정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에 이어집니다. >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 rowspan="2">대상</td><td>성별</td><td>나이</td><td>보호유형</td><td>대상질환</td><td>발병일</td><td>입원기간</td></tr>
<tr><td>남성</td><td>10대</td><td>급여 1종</td><td>뇌전증</td><td>2024.05.</td><td>2024.06.~</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4인 가구
■ 주보호자 : 부모
■ 부모님의 지지체계 매우 높음</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참여자 치료 의지 약화 및 내·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 저하</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치료 지속 지지체계 필요(치료비 지원사업)</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전세 임대주택
■ 주거환경 : 계단 이용, 좌식 생활
■ 추후 가정환경 평가 계획</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진로 탐색
■ 대학교 복학 시 이동 상황 파악 및 지원</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자택
■ 학업 복귀</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
■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수시 상담
■ 정서지원 : 이벤트 PG</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지원사업 신청(7월)
■ 신한희망사회프로젝트 치료비지원사업 지원 예정</td></tr>
</tabl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재활의학과 김인혜 과장님 송별회 (07.29)

김인혜 과장님께서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위해 휴직과 함께 조촐한 송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해나행에서 함께 하는 시간동안, 뇌신경계 참여자분들이 치료재활에서 사회복귀로의 회복여정에 이르는 건강한 뇌신경재활센터가 구축되었고, 그 중심에서 큰 역할과 역량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에 맞는 최선의 회복에 진심어린 관심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여 재활의료에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였고, 직원들과도 거리감 없이 편안하고 친근한 관계 속에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뵙겠습니다.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재활치료2팀 노을 부파트장 (07.05)

우리는 가족입니다.
7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7W) 방지선 간호사



시설팀 김동휘 팀원



영양팀 김문정 조리원



영양팀 이미선 조리원



재활치료1팀 서봉수 물리치료사

풀꽃 · 3

- 나태주 詩 –

기죽지 말고 살아 봐
꽃피워 봐
참 좋아.



재활간호팀(5W) 임부영 간호사



재활치료2팀 성치현 작업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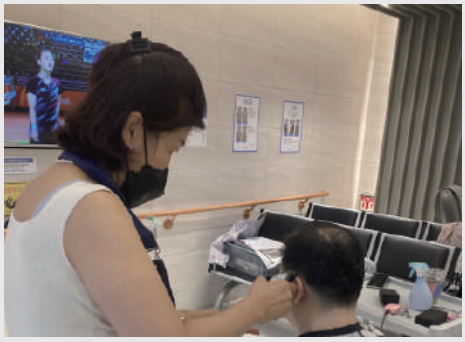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이미용 프로그램 (07.23)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명의 자원봉사자께서 입원 참여자를 위해 매월 1회 방문해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화요일에만 이미용 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며 총 25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혜임당 주거환경개선사업 (07.04)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에서는 혜임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퇴원 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심사를 통해 윤○○님이 선정되었으며 7월 4일, (사)나행동 운영진, 사회복지사, 인테리어업체 대표님이 함께 참여자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점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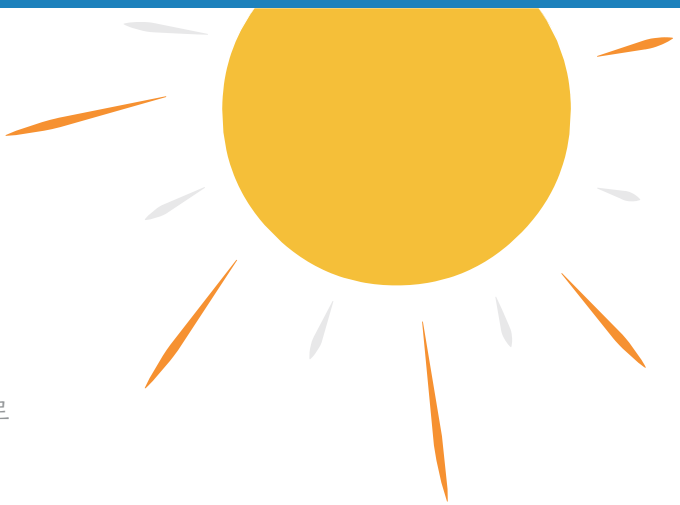
윤○○님(50대)은 의료급여 1종, 장애등급 뇌병변·언어장애 경증으로 본원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를 통해 재활치료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독보행이 가능하나 화장실에서 낙상을 수차례 하신 적이 있고,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방문 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미끄러운 재질의 바닥 타일과 높이가 높은 욕조는 참여자가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안전바가 없어 낙상 위험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주거환경 평가 결과, 화장실 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높이가 낮은 욕조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나행동은 재활전문가가 함께하여 맞춤형 개선사항을 조언해 드리고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님의 안전한 주거 공간을 기대하며 직원들과 함께 주변 환경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계시는 참여자의 '가정복귀'를 응원합니다.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7.25)



삼복지간(三伏之間)

[영양팀입니다]

'삼복지간(三伏之間)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더위가 심한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조차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기력이 쇠하기 쉽다고 합니다.

밥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재활인증 기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
더욱이 기력이 쇠하신 해나행 가족 여러분께 삼복더위의 한 가운데인 중복을 맞아
밥알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너무 가벼워서 느끼지 못한 입에 붙은 밥알은 가지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기력 보강을 위한 복달임 음식을 살~포시 준비 하였습니다.

다 아는 그 맛이 더 무서운 법.
다 아는 그 맛으로 미각의 즐거움도 느끼시고,
잠시나마 더위도 있으시고, 기력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복날은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굴복시킨 날이라고 합니다.

복날의 기세에 찌그러져
더위 먹기 직전인 영양팀이,
남아 있는 모든 기운을 짜내 준비한,
다 아는 그 맛으로,
더위에 굴복하지 마시고,
기력을 잘 붙들어 매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녁 먹고 숙제할 때 산만한 초등학생에게 #아빠의귓속말

호기심과 산만함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초조한 모습으로 현관 앞에 서있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분위기가 좋아진 걸까? 아님 더 살벌한 걸까? 도어락의 숫자를 하나씩 누르지만 귀는 여전히 현관문 건너 안쪽으로 집중해있다.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레 문을 연다. 바깥의 온도보다는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다행이 아이는 울지 않았고, 안방에서 숙제에 여념이 없었다.

30분전,

여느 때와 똑같은 집안 풍경이다. 우리들은 저녁을 먹었고 아내는 분주하게 빨래를 돌린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고무장갑을 낀 오른손으로 능숙하게 싱크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큰 아이는 거실에서 수학문제 풀이에 집중한 상태고 작은 아이는 방에서 학교 숙제를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집중력은 몽당연필처럼 짧았다. 수학문제 한 문제 풀고 왔다 갔다 하는 초등 6학년 큰 녀석, 거실에 일어나는 잡음이 궁금한 초등 4학년 둘째 녀석이 교차로 횡단보도처럼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 호기심과 산만함 사이에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어머니, 응가 할게요."
"그런데 아버지, 있잖아요."
"어머니, 휴지 주세요."
"아버지, 오늘 있잖아요."
"잠시 만요,"
"어머니, 물티슈가 없어요."
"연필 좀 깎을게요."
"지우개 어디 있는지 못 봤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엄마의 분노게이지는 머리위에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고,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나 역시도 혈압 상승 중이었다. 그런 눈치 챌 법 한 녀석들인데 이날 따라 감이 떨어진 두 녀석이다.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거실에 드리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훈육하다보면, 엄마와 아빠 둘 중 한명이 원펀치를 날리고, 다른 한명은 다독여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가령 어떤 날 아빠가 심하게 훈육을 했으면, 엄마가 살짝 다가와 아이를 위로하고 독려하며 그날의 잘못된 행동과 언행을 얘기하며 안아주는 것이 좋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다. 엄마와 아빠 모두가 애들에게 소나기를 퍼부으면 아이들은 그 날은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어 보인다. 기댈 곳이 없는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날 세탁실과 베란다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아내와 설거지를 끝내고 음식물을 버리러 가기 전의 나는 서로 말없이 아이들 쏘아보고 있다. 기어코 엄마가 단칼을 꺼내 들었다.

> 체벌에는 반드시 원칙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잘못의 내용과 그에 따른 체벌의 종류를 사전에 주지시키고,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 _고재학《부모라면 유대인처럼》(예담)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특히 ○○!(둘째아들), 오늘 왜이래! 딱 앉아서 30분만 집중하면 될 것을, 너희들은 시간이 아까운 줄도 몰라! 빨리 해놓고 자기 전에 좀 놀고 하면 되잖아!"

아직은 완전 폭발한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다음 대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 분명 아들 눈에 눈물이 나올 수 있을 훈육이 될 것이다. 아직 눈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얼굴은 이미 울상이다.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나도 작은 아들이 앉아있는 방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한손에는 음식물쓰레기 카드를 주머니에 챙겼다. 방문을 나가기 전 작은 아들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얘기 한다.

"딱 집중해서 숙제하고! 우리 ○○는 또 집중하면 잘하잖아~ 한다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 지금 바쁜데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말고, 알겠제?"



"네~ 다녀오세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면 어김없이 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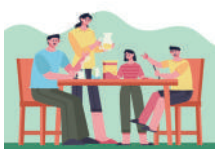
"아버지 다녀오세요.~"

이윽고 현관문이 닫히며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이 잘 잠겼는지 습관처럼 두어 번 댕겨본 후에야 계단을 내려간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평소처럼 20분 정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한다. 걸으며 위장에 머문 음식물을 소화시키지만, 머릿속에 머문 아들의 모습은 좀처럼 소화가 되지 않는다. '이 녀석 그 이후에 가만히 앉아서 숙제 할 했을까?'

> 주입식, 전달식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데 그치지만, 대화식 교육은 지성과 인성도 함께 전달된다.
> _고재학《부모라면 유대인처럼》(예담)

다행히 거실 가득했던 먹구름이 일찍 개였고, 모두의 할 일을 끝내고 나서야 다 같이 웃으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13살, 11살 두 아들과 아직 큰방에서 같이 잔다. 좁은 방에 네 식구 옹기종기 붙어서 자다가 작년부터 아내만 머리맡 침대에서 잔다. 허리와 골반에 통증을 느낀 다음부터 혼자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가끔 주위에서는 아직도 다 큰아이들과 같이 자냐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우리도 따로 자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언제까지 우리랑 함께 하지 않는 걸 알기에 굳이 억지로 각방을 권유하지는 않았다. 당장 중학교만 올라가도 자기 방에 침대를 요구할 테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책임지고 요구되어지는 숙제들이 하나씩 늘어간다. 최소한의 숙제와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저녁식사 함께 먹기와 잠자리 같이 자기는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저녁식사만큼은 지키고 있다.

밥상머리 교육,
저녁식사를 하며 아이들의 일과를 듣고, 칭찬과 격려를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1년전 이야기고, 현재는 중1, 초5로 따로 자고 있답니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4년 07월 31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